

시장

Anthony D. Weiner (D)

저는 앤서니 위너입니다. 뉴욕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산층과 그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공직자가 필요합니다. 이것이 제가 뉴욕 시장에 출마한 이유입니다. 우리 뉴욕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응시할 때 저는 제 가족의 경험을 통해 문제를 생각합니다. 저는 브루클린 중산층 가정의 자녀로 자랐습니다. 그리고 평생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. 제 어머니는 31년간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셨고, 제 아버지는 GI Bill(참전군인 등록금 지원 법안)의 도움으로 제가 아주 어릴 때인 60년대 중반에 로스쿨에 진학하셨습니다. 그리고 저의 부모님은 검약하고 저축해 첫 집 장만의 꿈을 이루셨습니다. 이런 경험- 훌륭한 교육, 혜택을 주는 좋은 직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-은 오늘날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. 중산층 가정의 삶을 바쳐주는 기둥이 부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. 저는 언제나 뉴요커들이 어떤 후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는지 보고 투표한다고 믿어왔습니다. 저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. "Keys to the City"라는 제목의 책 두 권에 이 아이디어들을 집필했고 제 웹사이트 anthonyweiner.com 에 게재했습니다. 저는 부유층이 주택 80%를 소유하고 빈곤층은 단 20%를 소유하는 현실을 60-20-20 플랜으로 바꾸어, 최소 20%가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. 또한 저는 나머지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제거할 권위를 교사에게 주어 이전처럼 반에서 기장을 잡을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. GPS 기술을 사용해 성범죄자들을 추적하여 그들이 폭행한 어린이와 여성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. 저는 메디케어와 비슷한 새 프로그램을 창설해 모든 뉴요커들이 돈을 절약하고,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며, 더 이상의 병원 폐원을 막을 것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한 해에 15만 달러 이하를 버는 모든 사람의 세금을 10% 감소해 이를 백만장자들의 세율을 단 1% 증가해서 메꾸고, 정부를 개혁해 매년 낭비를 5% 줄이겠습니다. 저는 부풀린 공약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- 저를 시장으로 선출해 주시면 우리는 드디어 중산층과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싸우는 사람을 시청에 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.

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.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.